

델파이조사를 이용한 결혼준비진단에 관한 기초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Diagnostic Process for Premarital Preparation by Using a Delphi Method : With Purpose of Developing Tool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김혜선
조교 박희성

Dept. of Home Economics, Korean National Open Univ.

Prof. : Kim, Hye Seon

Assistant : Park, Hee S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관련문헌고찰 | V. 요약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preliminary investigation about the diagnostic process for marital preparation against future divorce which will be necessary for developing tools for the process. Delphi tests have been twice held among 23 professionals regarding the concept of marital diagnosis and the areas of marital preparation to be estimated including definitions of the marital preparation for marriage and the status in which marriage has been prepared, and the categorization of the preparation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

Firstly, the concept of marital preparation is comprehensive, for it does include various kinds of preparation necessary for adjustment to marital life except the preparation for wedding ceremony. Secondly, the status in which marriage has been prepared can be divided into individual preparation, a couple's relational preparation, and preparation for marital life. Thirdly, premarital preparation education or counselling will be provided for young persons who are not in status of marital preparation. The areas of marital preparation to be estimated are maturity,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good health in terms of individual preparation, and the depth of love, understanding each other, similarity, harmonization, supplementation, capacity of communication, self-control, and all that sort of thing in terms of relational preparation, sex, views about marriage, information about marital life, role division, giving birth to child and

rearing, financial management, and understanding both families of husband and wife.

주제어(Key Words): 결혼준비진단도구(diagnostic process tool for premarital preparation), 델파이조사(delphi method), 이혼예방(prevention of divorce)

I. 서론

결혼이 제도적인 성격에서 우애적인 결혼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결혼적응이 어려워졌으며 급격한 이혼의 증가 현상은 이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혼 증가에 대한 입장증의 하나로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오래 전부터¹⁾ 제시되어 왔었다.

결혼 전의 단계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서비스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Mace, 1983)으로 이혼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결혼 전의 상담(Stanley & Markman, 1997)이나 혼련(Center for Marriage and Family, 1995)이 결혼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어 결혼전 단계에서 미혼남녀에게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혼 전 단계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이혼예방의 효과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혼남녀들 각자의 결혼준비정도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 더불어 이에 기초한 적절한 서비스 - 상담 혹은 교육프로그램 등 -를 제공받도록 하는 종합적인 서비스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이점이 있다(최혜경, 1998)는 의견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결혼준비 정도를 진단²⁾을 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즉, 결혼 전 미혼 남녀의 결혼준비 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그 취약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결혼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에 대하여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먼저 결혼준비정도를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이지은, 1993)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혼남녀의 결혼준비정도를 진단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다수가 인정하는 준거인 결혼이 준비된 상태에 대한 기준이 필

요하게 된다. 따라서 결혼준비진단도구는 일종의 준거참조검사(criterion referenced test)의 성격³⁾을 갖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 결혼준비진단도구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검사에서 지시하는 절차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결혼준비진단도구는 결혼

1) 그 일례로 이태영은 1969년에 출판한 그의 저서에서 이혼법이 유책주의(有責主義)에서 파탄주의(破綻主義)로 경향이 바뀌에 따라 이혼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혼에 대한 예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예견하였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생활교육을 등한시함으로써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가정생활에 돌입하는 위험을 초래하므로 가정생활교육(家庭生活教育)을 통해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① 근대적 혼인관 및 가정관의 교육, ② 혼인준비교육 ③ 가정관리방법 ④ 예의 ⑤ 가족관계 ⑥ 부부관계 ⑦ 기타 등으로 가정생활교육의 영역을 제시한 바 있다(한봉희, 1976 p. 140에서 재인용).

2) 진단(診斷, diagnosis)의 어원은 그리스어 diagnosis에서 '떨어져' (dia-)란 의미와 '알기' (gnosis)라는 의미의 합성어로서 '구별하기' 또는 '정확한 분류' (혹은 정확한 분류를 위한 기록)라는 뜻을 갖는다. 즉, 이 용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범주화(categorization)작업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의 진단이라는 용어 속에는 범주화의 내용과 함께 범주화 이후 어떤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이기영·조영희·송혜림·이승미(1998)는 '생활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진단이라는 의미가 대상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다음 단계에서 행해져야 할 처방의 대략적인 범주를 지정하는 작업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정의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대상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정한 기준으로서 합목적성과 정상성(혹은 일반성)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나 진단의 대상이 다르며 무엇보다도 '결혼준비정도'라는 개념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만한 합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3) 준거참조검사는 평가대상자의 검사점수에 따른 상대적

준비정도를 측정하는 영역을 구체화하는 것과 동시에 결혼이 준비된 상태에 대한 준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고, 후에 문항제작 및 문항분석, 검사제작의 순서를 밟게 된다. 그런데 국내의 사정은 결혼 전 예비부부들을 위한 결혼준비도 평가척도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결혼준비에 대한 개념조차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측정영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시에 준거를 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이처럼 선행연구자료가 없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유일한 자료일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델파이법(이성웅, 1987)이 있다. 결혼준비 정도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하고 결혼준비에 대한 개념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 전 단계의 미혼남녀에게 그들의 결혼준비정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델파이법을 이용하여 결혼준비진단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증가 일변도에 있는 이혼을 예방하고 결혼 이후 결혼생활의 적응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결혼준비진단도구의 성격이 준거참조평가의 성격과 유사하므로 그 절차를 차용하여 우선적으로 결혼준비진단의 개념설정과 결혼준비평가영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결혼준비진단의 개념은 어떠한가?

- 1-1. 결혼준비의 개념은 어떠한가?
- 1-2. 결혼이 준비된 상태란 어떠한가?
- 1-3. 결혼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게) 취하는 조치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결혼준비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II. 관련문헌고찰

1. 결혼준비진단의 배경

이혼에 대한 관점이 비단 역기능적인 측면에만

모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 이후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특히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들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Stanley & Markman, 1998).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들⁴⁾이나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프로그램⁵⁾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등 이혼을 예방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 세계 제 2차 대전 이전의 결혼준비는 주로 목사나 상담가가 예비부부에게 상담을 통하여 병리적인 사람을 찾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심리학의 시야가 개인 내적인 관점에서 대인관계와 상호작용으로 넓어지는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서열에 의하여 어떠한 결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평가대상자가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중점을 둔다. 그러므로 준거참조검사에서 중요시되는 요인은 측정 영역과 준거이다. 또한 준거참조검사는 평가대상자가 어떤 영역에서 얼마만큼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미래의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목적을 지닌 검사에 사용된다. 한편, 준거참조검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측정목표가 정해져야 한다. 그런 다음 측정영역을 구체화하는 것과 준거를 설정하는 절차 동시에 따르게 된다. 이때 측정영역의 구체화는 조작적 정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준거판단은 전문가의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 후에 비로소 문항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문항 분석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작업 끝에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검사제작이 완성되게 된다(성태제, 1998).

- 4) 결혼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Stahmann & Hiebert, 1997) 혹은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개별적인 위험요인(risk factor)을 찾거나(Booth & Edwards, 1985; Glenn & Kramer, 1987; Kurdek, 1993; Maneker & Rankin, 1993), 이런 위험요인들을 범주화(Larson & Holman, 1994)한 연구 등을 그 예로 꼽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결혼초기에 결혼이 극히 불안정하다는 연구결과(이동원, 1983)와 함께 부부갈등의 원인에 대한 연구(박영옥·한상순, 1987; 이미영·박혜인, 1995; 전춘애·박성연, 1994), 성공적인 결혼의 요소를 밝히려는 연구(노치영·최혜경, 1996; 최규련, 1988)가 이루어졌으며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정민자, 1996)되었다.
- 5) Silliman, B. · S. Stanley · W. Coffin · H. Markman · P. Jordan 등은 이혼예방과 관련되어 가장 광범위하게

는 사람이 아닌 문제가 있을 만한 결혼을 선별해 내는 것으로 관심이 바뀌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예방차원의 결혼준비개념이 부각되면서 결혼전 시기에 대한 논의는 결혼준비교육이라는 용어로 대표(Olson, 1980)되고 있는데 이는 교육적 모델을 강조함에 따라서 나타난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김혜석, 1990에서 재인용). 결혼준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결혼준비도를 평가하는 것은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교육내용 중의 하나(Olson, 1983)가 되었다.

즉, 결혼준비도 평가는 결혼준비의 개념이 문제점을 선별하는 병리적 차원에서 교육을 통한 예방을 강조하면서 비중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혼의 개념이 일종의 성인식의 의미로 받아들여던 관점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는 근대적 결혼관(옥선화·이기영, 1996)으로 변화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결혼준비도 평가의 성격은 평가 이후 사후의 조치를 염두에 둔 진단적 도구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결혼준비도 평가 영역⁶⁾

가장 오래된 결혼준비도 평가도구 중의 하나로 Manson(1965)에 의하여 개발된 CMRE(California Marriage Readiness Evaluation)가 있다. 이 척도는 결혼 전 커플들의 결혼 준비 수준을 탐색하기 위하여 개발된 질문지로서 주로 상담장소에서 쓰인다. 이 질문지는 상담자에게 결혼적응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 커플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결혼과 관련된 <표 1>과 같은 8가지 기본적인 영역을 탐색한다. 이 척도는 총 115개의 문항들을 8개의 하위영역에 중복적으로 포함하여 총 239개의 질문을 하며, 각 영역별로 문항들의 총합이 계산된다. 따라서 상담자는 각 영역별로 커플의 취약점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문항 자체에서도 커플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CMRE는 문항중복의 문제와 함께 문항양호

도, 타당도,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상담용 질문지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임상적인 성격이 강하다.

기독교적 신념이 바탕이 되어 제작된 FOCCUS는 미국 네브라스타주 오마하에 있는 가족생활연구소에서 Markey 박사 등 3명의 결혼 및 가족 상담가에 의하여 1985년에 개발되었다. 이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에 대하여 총 189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커플의 각 파트너가 응답한 결과를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이를 밝히게 되며 커플에게 관심사에 관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질문들이 있는 책자가 지급된다.

한편, 1979년 브리검영 대학에서는 학자, 연구자, 가족생활교육사, 상담가 등이 모여 비영리 결혼연구 컨소시움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결혼전 그리고 결혼 이후 관계를 강화·이해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의 첫 번째 판은 1980년 Burr에 의하여 개발되었고 이 때의 명칭은 Marital Inventories 이었다. 그 후 이 도구를 10년 동안 사용한 뒤 결혼전의 준비도 평가에 중점을 둔 PRE-M(Preparation for Marriage)으로 대체하였다가 마침내 1997년 RELATE로 개정하였다. 이 도구는 개인이나 커플

결혼 전 커플이나 부부단위로 실시·연구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을 통해 대표적인 3개의 프로그램을 제시(2001)했는데 그 첫번째가 RE(Relationship Enhancement)이다. 이 프로그램은 공감능력을 높이는 사회학습프로그램으로서 공감기술과 문제해결기술이 향상된다고 했다.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 향상에 중점을 둔 CC(Couple Communication)와 같은 프로그램을 들었다. PREP(Prevention and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는 강의, 토론, 대인관계기술연습이라는 방법으로 의사소통, 갈등관리, 수용, 종교, 기대, 재미, 우정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기술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대와 신념에 관하여 철저한 연습을 하는데 초점을 둔 전반적인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기술중심의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PREP와 같은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효과가 높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6) 현재 결혼준비도 평가 영역에 대한 국내의 문헌이 없으므로 대증적으로 알려진 외국의 결혼준비도 평가 도구를 통해 대략적인 정보를 참고하고자 한다.

〈표 1〉 외국의 결혼준비도 평가 도구

	CMRE(California Marriage Readiness Evaluation)	FOCCUS(Facilitating Open Couple Communication, Understanding & Study)	RELATE (RELATionship Evaluation)	PREPARE (Premarital Personal & Relationship Evaluation)
개발자·연도	Manson(1965)	Markey, B., M. Micheletto & A. Becker(1985)	브리검영대학(1997)	D.H.Olson(1996)이 개발. 4번째 개정판
개발 목적	상담자가 결혼전커플들의 상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	상담자나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자신들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자료를 갖기 위하여 개발됨	결혼전·후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이해하기 위하여 개발됨	결혼 전 커플들에게 관계의 강점과 문제점을 측정하여 대화를 촉진하고 관계증진을 도모하고자 개발된 진단적 질문지
측정대상	결혼 전 커플	결혼 전 커플 또는 개인	결혼 전 커플 또는 개인	결혼 전 커플
하위 영역	I 성격영역(①기질 ② 정서적성숙 ③ 결혼준비성) II 결혼에 대한 준비도 영역(④ 가족경험 ⑤ 금전관리 ⑥ 계획성) III 양립성영역(⑦ 결혼 동기 ⑧ 양립성)	I 커플의 조화도(생활양식 기대, 친구와 관심사, 파트너와의 성격, 개인적문제) II 기술영역(의사소통, 문제해결) III 결혼부속물(종교와가치, 양육문제, 양가문제, 성생활, 재정관리) IV 결혼식요인(결혼식준비, 법적준비 등)	I 개인영역(사회성, 차분함, 조직성, 융통성, 정서적인 성숙, 행복도, 자존감) II 파트너와의 동의(결혼역할, 취업, 섹슈얼리티, 자녀 및 종교) III 각자 가족경험에 대한 상대방과의 지각차이(가족과정, 부모의 결혼만족, 부모와의 관계, 가족스트레스, 신체적성숙, 부모와 커플의 의사소통 유형, 갈등유형, 관계만족 및 안정도) IV 술·돈문제 등 문제영역	I 인성(주도성, 자신감, 회피성, 상대에 대한 지배성) II 관계에서의 개인내적인 영역(이상애곡, 성격문제, 종교, 여가생활, 결혼에 대한 기대, 결혼만족) III 관계에서의 개인외적영역(의사소통, 갈등해결, 출산과 양육, 친밀감, 역할관계, 성적 관계) IV 외부문제(가족과친구, 금전관리, 가족친밀도 및 가족융통성)
비고	임상상담용 질문지로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음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척도가 고안됨	처음 Burr(1980)에 의해 개발되어 사용하다가 1997년 RELATE로 개칭	1978년 초판이후 총3번의 개정을 거쳐 12개에서 총 19개의 영역으로 측정영역이 증가함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20년 동안 수만 커플과 개인에게 사용되었다. 이 도구는 〈표 1〉과 같은 4개의 영역에서 271개의 문항을 통해 '거의 그렇지 않다' 에서 '거의 그렇다' 라는 5점의 척도로 질문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들 영역에서의 평가를 통해서 스스로 결혼을 할 것인지 혹은 관계를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한다.

Olson은 이론적인 배경과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결혼에서의 갈등영역에서 가장 보편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자료를 기초로 도구를 제작하였다. 그는 먼저 결혼에서의 갈등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표 1〉과 같은 4개의 영역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을 바탕으로 평가척도인 PREPARE(Premarital

Personal and Relationship Evaluation)를 개발하였다. 이 평가척도는 결혼 전 커플들의 관계의 강도와 문제영역을 측정하며 커플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관계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적으로 개발된 진단적 도구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미 100만 쌍 이상이 결혼 전에 이 검사를 받았다. 당초 이 프로그램은 결혼을 약속한 커플들에게 상담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고안되었다. 165개의 진술문형태의 항목에 대하여 그 내용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 평가도구들은 외국에서는 결혼준비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로 임상적인 상담이나 결혼준비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의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쓰이

고 있다. 그러나 CMRE의 경우는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못한 지극히 임상적인 용도로 쓰이고 있고, FOCUS는 종교적인 바탕에서 제작된 만큼 일반화에 무리가 있다. RELATE나 PREPARE는 척도로서의 신뢰성이 입증되었고 수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효과를 입증한 매우 탁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 한국의 미혼남녀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문항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측정 도구들은 모두 결혼 전 커플이 여러 영역에 걸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결혼준비도 평가 도구가 다차원적인 척도로 구성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입증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방법

1. 델파이조사

결혼준비진단도구를 개발하는데 준거참조검사의 방법을 차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준비도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을 규명하는 것과 준거를 선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인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법은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거나 일정한 합의점에 달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의 의견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이나 우편조사방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피이드백시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된 의견을 얻는, 소위 집단적 사고를 체계적으로 접근시키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미래의 목표, 목적 또는 행동과정에 관한 집단의 의견일치를 근접시키는데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현재의 상태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전문가적인 직관을 객관화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김진웅, 1999에서 재인용) 이 경우 전

문가의 견해는 거의 유일한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

델파이의 어원을 살펴보면, 델파이는 고대 그리스 시대 아폴로신전의 소재지로서 그리스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성지를 일컫는다. 즉 델파이법⁷⁾은 특정한 전문가 패널로부터 체계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의 장점을 살리면서 이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델파이법은 본래 4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으나 델파이 이용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실시되어 왔다. 2 라운드만을 갖고서도 충분히 델파이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그간의 연구결과(김형수, 1996)를 통해 확인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일종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으로써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단계로서 1 라운드 조사를 실시하고 2 라운드에서는 1 라운드 조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중요도를 측정하거나 이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문가의 반대의견(counter argument)을 원하지 않는 경우 라운드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김진웅, 1999) 총 2 회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실시했다.

7) 델파이법은 통상적인 대면 방식의 그룹활동과 구별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의 몇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델파이법은 익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전문가들은 명성이 높은 특정개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한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둘째, 델파이 총괄수행자가 응답자에 대해 결과를 피이드백을 해줌으로써 자신의 응답을 수정할 기회를 준다. 어떻게 수정응답을 보장함으로써 대면법에서 흔히 발견되는 합의를 위한 합의에 매달리게 되는 경향이나 논쟁을 통해 이기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에서 해방된다. 셋째, 설문을 반복하여 수행한다는 점이다. 넷째, 그룹 전체의 의견을 통계적으로 집계하고 의견의 분포적 특성을 제시해 주게 된다. 전형적으로 대면회의 방법에서는 다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흐르기 쉬운데, 이 때 소수의견이 기록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묵살되거나 이용되지 않게 된다. 즉 델파이법이 다수의 의견에 의해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지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의견을 처리하여 제시함으로써 그룹내의 의견차이 정도를 보여주고, 강한 소수의견에 대해서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강영호, 1998에서 재인용).

2. 연구대상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는 결혼 전 상담 및 결혼 준비교육 전문가 및 가족관계 연구 전문가 23인이었다. 23인 전문가의 성격을 보면, 가족관계전공 교수 19명, 전문적인 상담가 2명, 결혼정보회사 2군데였다. 그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관계전공 교수들의 경우에는 모두 결혼 전 가족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물이 있는 분들이었다. 전문가 선정의 원칙으로 우선적으로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장 중요시하였고, 대학/비대학, 서울/지역의 배분도 고려하였다. 그러나 대학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 연구의 제한점이 되고 있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에 대한 델파이 조사는 총 2회의 라운드에 걸쳐 실시되었고, 총 조사기간(1차발송~2차회송)은 12주(2000. 4. 27~2000. 8. 15)였다.

(1) 제 1 라운드 델파이 조사

1 라운드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23명에게 주로 우편을 통해 질문지를 송부하였으며 질문지 안에는 2 라운드 델파이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안내문을 기재하였다. 1 라운드 조사는 국내외에서 개발되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결혼 전 교육프로그램 및 결혼 전 교육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결혼준비평가척도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전반적인 결혼준비진단개념과 결혼준비도 평가영역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즉, 결혼준비진단도구를 개발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전문가에 의하여 준거기준을 확립하는 것과 동시에 측정영역을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결혼준비의 개념과 결혼이 준비된 상태를 정의하고 결혼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조치를 질문하였으며, 결혼준비도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고 제 1라운드 조사의 회수율은 91.3% 이었다. 취합한 자료는 유목화, 빈도분석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제 1 라운드 조사는 브레인스토밍에 해당 하는 것으로 이 라운드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존중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제 1라운드 결과 나타난 모든 의견을 제 2 라운드 조사시에 감안하였다.

(2) 제 2 라운드 델파이 조사

제 1 라운드 조사결과에 의하여 결혼준비 용어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 정리한 결과에 의거, 종합된 의견에 대한 최종의견을 얻기 위하여 제 2 라운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2 라운드 조사에 사용된 조사지는 제 1 라운드 조사결과를 문항별로 정리, 분석하여 재작성하였다. 그리고 집약된 의견에 대한 이견이나 추가해야 할 부분에 관한 질문을 첨가하였다. 그 중 결혼준비도 평가 영역에 관한 질문에서는 제 1라운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한 문항에 전문가들이 1점~5점까지 범위에서 중요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2라운드 조사의 실시방법 및 회수, 그리고 자료처리 방법은 1차 조사시와 동일하며 총 21명의 조사대상자 중 19명(회수율 90.5%)이 응답하였다.

IV. 연구결과

1. 결혼준비진단의 개념

결혼준비진단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혼준비의 개념정의, 결혼이 준비된 상태에 관한 정의, 결혼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1) 결혼준비개념

결혼준비 개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결혼준비'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결혼식절차나 혼수준비와 같은 결혼의례의 준비를 일컫는 협의의 의미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의 적응을 위한 정서적·인격적·관계적·신체적·경제적·법적

〈표 2〉 결혼준비개념설정에 관한 의견(1 라운드 조사결과)

결혼준비개념설정에 관한 의견	빈도(%)
'결혼식 준비'를 협의의 개념으로 포함하고 결혼생활의 다양한 측면의 준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의미를 확대해야 한다	10(71.4%)
결혼준비의 의미가 이미 '결혼식 준비'로 통용되는 만큼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21.4%)
주로 '결혼식 준비'를 일컫는 결혼준비라는 단어를 본래의 뜻에 맞게 '결혼의식준비'라고 표현해야 한다	1(7.2%)
계	14(100%)

인·관계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의 준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나 결혼준비진단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협의의 개념을 제외함

결혼준비라는 용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시적인 결혼준비과정만을 강조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결혼준비라는 개념을 단지 결혼식 절차와 혼수준비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는 의견이 다수(12명)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결혼준비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들(14명)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1 라운드 조사 결과 결혼준비개념설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14명중에서 10명이 결혼준비는 결혼생활의 다양한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비록 현재 결혼준비의 개념이 가시적인 결혼준비를 일컫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므로 결혼식 준비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명칭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결혼생활준비라는 용어를 사용(2명)하거나 예비부부교육이라는 용어(1명)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결혼생활준비 혹은 예비부부교육이라는 용어는 자칫 한정적인 의미만을 뜻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준비라는 용어를 계속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제 2 라운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결혼준비라는 개념 속에 결혼식 준비라는 협의의 개념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였다. 즉, 결혼준비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결혼의례준비라는 의미로 주로 통용되어 여태껏 포괄적 개념의 결혼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 협의의 개념을 포함한다면 이런 우려를 또다시 범할 수 있으므로 연구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준비의 개념으로 결혼생활의 다양한 측면의 준비를 포함하지만 협의의 개념인 결혼식 준비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2) 결혼이 준비된 상태의 정의

결혼준비의 개념이 설정되면 이에 기초한 결혼준비를 하는 당사자인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의 결혼이 준비된 상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제 1 라운드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각자 결혼이 준비된 상태에 대한 다양한 진술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가 결혼이 준비된 상태에 대한 진술들을 개인적 측면,

8) 그 단적인 예로 인터넷에서 검색어로서 '결혼준비'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주로 결혼식절차와 혼수준비(예단포함)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Olson과 Olson(1997)은 결혼과 같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익히기 보다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더 많이 소비한다고 지적하였다.(출처 <http://www.lifeinnovation.com/studies/overview.html>)

커플의 관계적 측면, 결혼생활 측면의 3 부분을 중심으로 재분류를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개인적 측면의 준비 : 결혼 당사자의 정서적·사회적·윤리적 성숙이 바탕이 되어 자아정체감이 확립되고, 부모로부터 정서적·경제적·심리적으로 독립된 상태
- 커플의 관계적 측면의 준비 : 서로의 애정도가 높은 상태에서 상대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관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
- 결혼생활 측면의 준비 : 각자 결혼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및 정보를 소유하고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양가가족에 대하여 정확히 알며 차이점을 이해하고 적응하려는 의지를 갖춘 상태로 두 사람이 결혼 후 금전관리·가사분담·자녀출산 및 양육·성적인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합의를 이룬 상태

이러한 분류에 대하여 2차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문의해 본 결과 대부분 합의를 하였다. 한편, 개인적 측면의 준비는 전체적인 진단 모델에서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가중치를 주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의견은 이혼이 증가하면서 결혼전 상담자로서의 목사의 임무는 예비부부들의 결혼에 대한 정서적 준비도와 성숙도를 점검하는 것이었다는 역사적인 사실(김혜석, 1990에서 재인용)과, 개인적 속성과 행동 그리고 커플의 상호작용과정이 결혼의 질과 안정성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범주라는 선행연구(Larson & Holman, 1994)에서도 지지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개인적 측면의 준비에 대하여 좀더 가중치를 두기로 한다.

3) 결혼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에게) 취해야 하는 조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공동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첫째는 현재와 같이 결혼에 대한 아무런 준비교육 또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결혼하는 실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면서 체계적인 결혼에 관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결혼준비교육 : 장기적으로 초등학교부터 학교에서 각 단계에 맞는 교육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며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결혼준비 프로그램을 실시하되, 결혼준비교육 중 교육 당사자별로 취약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
- 상담 : 결혼준비교육 실시 중 특별히 취약한 경우이거나 결혼준비진단시에 준비가 안된 정도가 심한 경우 상담을 실시. 준비가 안된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단상담의 형태로 실시하고, 준비가 안된 정도가 심한 경우는 개인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음.

둘째는 결혼을 앞두고 있으나 결혼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가 도움을 주는 방법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즉, 전문가가 도움을 주는 데 있어 교육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9명) 아니면 상담과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좋은지(12명)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는데,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

한편, 결혼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에게 병리적 접근을 취하여 도움을 주는 것에 관하여 별

<표 3> 결혼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에게 전문가가 도움을 주는 방법(1 리운드 조사결과)

전문가가 도움을 주는 방법	빈도(%)
전적으로 '교육'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9(42.9%)
결혼이 준비되지 않은 영역 및 정도에 따라 상담과 교육을 병행한다	12(57.1%)
계	21(100%)

〈표 4〉 병리적 접근에 대한 의견(1 라운드 조사결과)

병리적 접근에 대한 의견	빈도(%)
자제해야 한다	2(22.2%)
병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7(77.8%)
계	9(100%)

도의 의견(9명)이 있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보면 〈표 4〉와 같이 병리적 접근이 자칫 결혼당사자에게 결혼적응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병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대별된다.

한편, 결혼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의견(5명)으로 전문가의 도움 이전에 본인이 결혼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상태에 대한 수용이 먼저 필요하다(1명), 결혼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1명, 그리고 그 결혼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3명)도 있었다. 과학적인 진단도구로 평가받고 있는 Olson이 제작한 PREPARE의 경우 이 검사를 받은 328명 중에서 86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그 결혼을 포기했다는 연구결과(Fowers, Montel & Olson, 1996)를 감안하면 이와 같은 전문가의 의견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결혼준비도 평가 영역

결혼준비평가도구 개발에서 구체적인 영역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결혼이 준비된 상태'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제 1 라운드 조사지의 예시문에서 제시한 바 있는 '혼전 갈등영역의 측정' 및 '결혼 당사자들 간의 불일치 영역을 측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자칫 결혼당사자로 하여금 선입견을 갖게 하여 결혼 이후 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제 2 라운드 조사지에서는 '결혼이 준비된 상태의 정의'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개인적 측면의 준비, 관계적 측면의 준비, 결혼생활 측면의 준비, 기타영역의 준비 등으로 구분하여 재분류하였다. 이 중 개인적 측면의 준비 영역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성숙⁹⁾'의 경우는 서

봉연과 황상민의 연구(1993)에서 밝힌 성숙에 관한 영역을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텔파이조사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 1 라운드 조사에서 나타난 전문가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표 5〉에 자세하게 나와있다. 결혼준비 및 결혼이 준비된 상태에 대한 개념정의의 바탕으로 개인적, 커플과의 관계적, 결혼생활 측면이라는 중요한 3개의 범주와 이 3개의 범주내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준비 측면 등 4개의 범주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

9) 서봉연·황상민(1993)의 연구에서 수행한 성숙의 분류.

1. 정서 안정성: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 타인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분이나 느끼는 감정적 요소의 변화정도를 지칭한다. 심리사회적 성숙을 나타내는 심리적 구성체로서의 정서안정성이란 어떤 사람이 평소에 유지하는 감정적 요소가 그 사람이 생활하는 맥락과 얼마나 조화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2. 사회인지역량: 사회인지란 사람이나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나 지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인지적 성숙성이란 자신이나 타인, 또는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얼마나 높으나 또는 이런 문제나 현상을 이해하는데 기울이는 노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3. 사회적 성숙성(대인관계): 사회적 성숙성 또는 사회성이란 한 개인이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나 집단성향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개인이 조화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갈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개인으로 발달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4. 긍정적사고: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타인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태도나 사고방식을 말한다. 이 영역에 속하는 문항들은 원래 사회인지 역량을 나타낸다고 생각되었으나, 요인분석결과 이 문항들은 사회인지역량과는 다른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윤리·도덕성: 윤리·도덕성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태도나 성향 또는 윤리성을 의미한다. 즉 어떤 사람의 태도나 행동평가의 기준이 관습적인(conventional), 또는 명목적인(normative)윤리, 도덕적 가치와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가 된다.
6. 자아정체성: 개인이 자신을 인식하고 또 시간이 흐르거나 상황이 바뀌어도 자기 자신이 여전히 동일한 존재로서 인식하려는 의식이다. 또한 자아정체감이란 자신이 타인과 구별될 수 있는 독자성, 일관성 내지는 통일성인 동시에 또한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출처: 서봉연·황상민(1993). 서울대생의 심리사회 성숙성에 관한 연구. 학생연구 28-1, 1-31. 중 p16 표 4에서 인용

<표 5> 결혼준비평가 영역(제 1 라운드 조사 결과)

구분	세부영역	결혼이 준비된 구체적인 상태	빈도(N=209)	
개인적 측면의 준비	성 숙	정서안정성	자기조절능력이 있으며 정서적인 안정성을 이룬 상태	8
		사회인지역량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성숙된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상태	2
		사회적성숙성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	7
		긍정적사고	성취욕구가 정립되어 있고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적극적)인 사고능력이 있는 상태	3
		윤리·도덕성	시민의식, 직업의식, 윤리의식 등이 갖추어진 사회적·윤리적·도덕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상태	2
	자아정체성	자신의 기질, 성격, 비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긍심이 있고 자기에 대한 정체감이 확립된 상태	15	
	부모로부터 독립	부모로부터 경제적·정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 결혼의 동기가 부모의 영향과는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	7	
관계적 측면의 준비	애정도	상대에 대한 애정표현정도 및 사랑의 각 요소(열정, 친밀감, 헌신), 혹은 수용도에 있어 이해와 확신이 있는 상태	6	
	상대방에 대한 파악 및 이해	상대방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하여 현실적인 파악을 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기대와 비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한 상태	12	
	유사성	사회적인 유사성을 바탕으로 상호간 경제적·사회적 기대와 신앙이 일치하는 서로에 대한 일치도가 높은 상태	5	
	양립성	각자의 기질, 성격, 가치관, 여가, 삶의 비전 등에서 차이점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태	12	
	보완성	서로 성격적인 측면에서 보완관계를 이룰 의향과 결심이 굳게 서 있는 상태	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을 통하여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관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	8	
	자율성	파트너로부터 자율성 정도	1	
결혼 생활 측면의 준비	성	성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지식과 기대, 태도를 가진 상태	4	
	결혼관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상태	25	
	결혼생활정보	결혼생활이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서로 교환하는상태	4	
	역할분담	결혼후 역할분담에 관한 서로의 의견을 알고 받아들이는 상태	8	
	자녀출산과양육	자녀출산과 양육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룬 상태	10	
	금전관리	가정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관리방법이 서 있는 상태	14	
기타 준비 영역	양가가족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이해	상대편 출생가족(방위가족)에 대한 적응의지를 갖춘 상태에서 양가 가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그 차이점에 대하여 이해하여 서로원하는 가족형태가 합의된 상태	25	
	건강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일 것	9	
	결혼의례준비	약혼식·결혼식·신혼여행의 내용과 비용에 대한 합의와 준비, 혼수범위 및 내용에 대한 합의와 준비 등이 이루어진 상태	5	
	연령	연령상 결혼당사자가 성인기에 해당할 것	2	
	교제기간	적절한 교제기간을 가질 것 : 적어도 9개월 이상	2	

〈표 6〉 결혼준비평가 영역(제 2라운드 조사 결과)

구분	세부영역	결혼이 준비된 구체적인 상태	중요도(19~95)	
개인적 측면의 준비	성 숙	정서안정성	자기조절능력이 있으며 정서적인 안정성을 이룬 상태	88
		사회인지역량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성숙된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상태	76
		사회적성숙성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	75
		긍정적사고	성취욕구가 정립되어 있고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적극적)인 사고능력이 있는 상태	66
		윤리·도덕성	시민의식, 직업의식, 윤리의식 등이 갖추어진 사회적·윤리적· 도덕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상태	63
		자아정체성	자신의 기질, 성격, 비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긍심이 있고 자기에 대한 정체감이 확립된 상태	90
	부모로부터 독립	부모로부터 경제적·정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 결혼의 동기가 부모의 영향과는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	82	
건강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일 것	90		
관계적 측면의 준비	애정도	상대에 대한 애정표현정도 및 사랑의 각 요소(열정, 친밀감, 헌신), 혹은 수용도에 있어 이해와 확신이 있는 상태	87	
	상대방에 대한 파악 및 이해	상대방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하여 현실적인 파악을 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기대와 비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한 상태	82	
	유사성	사회적인 유사성을 바탕으로 상호간 경제적·사회적 기대와 신앙이 일치하는 서로에 대한 일치도가 높은 상태	70	
	양립성	각자의 기질, 성격, 가치관, 여가, 삶의 비전 등에서 차이점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태	82	
	보완성	서로 성격적인 측면에서 보완관계를 이룰 의향과 결심이 굳게 서 있는 상태	54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을 통하여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관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	82	
	자율성	파트너로부터 자율성 정도	57	
결혼 생활 측면의 준비	성	성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지식과 기대, 태도를 가진 상태	79	
	결혼관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상태	90	
	결혼생활정보	결혼생활이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서로 교환하는 상태	67	
	역할분담	결혼후 역할분담에 관한 서로의 의견을 알고 받아들이는 상태	76	
	자녀출산과양육	자녀출산과 양육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룬 상태	66	
	금전관리	가정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관리방법이 서 있는 상태	70	
	양가가족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이해	상대편 출생가족(방위가족)에 대한 적응의지를 갖춘 상태에서 양가 가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그 차이점에 대하여 이해하여 서로 원하는 가족형태가 합의된 상태	81	

(총점 1673점)

견을 진술문형태로 나열(총 209개의 진술문)하여 분
류¹⁰⁾한 뒤, 이를 다시 비슷한 문항끼리 분류하여 세

10) 부록 참고

부항목에서 명명하였다. 이렇게 하여 밝혀진 세부영역은 개인적준비 측면에서는 2영역, 커플의 관계적 준비 측면에서는 7영역, 결혼생활준비측면에서는 7영역, 기타준비측면 4영역 등 총 20영역이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에 나타나 있다.

제 2 라운드 조사 결과에 앞서 결혼준비개념 및 결혼이 준비된 상태를 정의할 때 협의의 개념을 제외하였으므로 기타준비영역을 제외하였고, 기타 준비영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난 결혼의례준비, 연령 그리고 교제기간을 삭제하였다. 한편 기타준비영역 중에서도 건강의 경우는 중요도가 높고 이를 개인적 측면의 준비영역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따르기로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친 제 2 라운드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표 6>에 나타나 있다.

제 2 라운드 델파이 조사 결과 각 세부영역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산정한 중요도의 총점은 1673점이었다. 이중 개인적 측면의 준비영역이 630점, 관계적 측면의 준비영역이 514점, 결혼생활측면의 준비영역이 529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루어 보아 앞서 개인적 측면의 준비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가중치를 더 주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관계적 측면의 준비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난 보완성 및 자율성은 향후 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본다.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이혼예방을 위한 결혼준비진단을 위한 도구를 개발함에 앞서 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결혼준비 및 결혼이 준비된 상태에 대한 정의 그리고 결혼준비에 대한 범주화 등을 포함한 결혼진단의 개념과 결혼준비평가 영역에 관한 조사를 델파이 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결혼준비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결혼식 절차나 혼수준비와 같은 결혼의례의 준비를 일컫는

협의의 의미로 많이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이혼예방을 위한 결혼준비진단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준비개념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의도적으로 협의의 개념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결혼준비란 결혼의례준비를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을 제외한 결혼생활의 적응을 위한 정서적·인격적·관계적·신체적·경제적·법적·관계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의 준비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는 대다수 외국의 결혼준비도 평가 영역에서도 지지되고 있다.

둘째, 결혼이 준비된 상태란 개인적 측면의 준비, 커플의 관계적 측면의 준비, 결혼생활 측면의 준비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측면의 준비란 신체적으로 건강하면서 결혼당사자의 성숙이 바탕이 되어 부모로부터 심리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를 의미한다. 커플의 관계적 측면의 준비는 서로의 애정도가 높은 상태에서 상대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관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결혼생활측면의 준비는 각자 결혼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와 정보를 소유하면서 서로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양가에 대하여 정확히 알며 차이점을 이해하고 적응하려는 의지를 갖춘 상태로 두 사람이 결혼 후 금전관리·가사분담·자녀출산 및 양육·성적인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합의를 이룬 상태를 의미한다.

셋째, 결혼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에게는 결혼준비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결혼이 준비된 상태와 관련하여 그 정도와 영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개 준비가 안된 정도가 심하고 그 영역이 개인적 측면 준비에 해당한 경우 상담을 실시하며, 접근방식으로는 때에 따라서는 병리적 접근도 가능하다. 그러나 결혼당사자가 실제 결혼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병리적 접근을 하는 것은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혼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당사

자인데 결혼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상태에 대한 수용이 먼저 필요하다.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결혼에 대한 교육, 상담, 혹은 연기나 재고 등이 가능하다.

넷째, 결혼준비도 평가 영역은 결혼이 준비된 상태의 정의에 따라 크게 개인적 측면의 준비, 관계적 측면의 준비, 결혼생활측면의 준비영역 등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개인적측면의 준비는 성숙, 부모로부터의 독립, 건강의 세부영역이 있으며, 관계적 측면의 준비는 애정도, 상대방에 대한 파악 및 이해, 유사성, 양립성, 보완성, 의사소통능력, 자율성 등의 세부영역이 있고 결혼생활측면의 준비는 성, 결혼관, 결혼생활정보, 역할분담, 자녀출산과 양육, 재정관리, 양가가족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이해의 세부영역이 포함된다. 이중 개인적 측면의 준비는 상대적으로 중요도 점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결혼준비진단모델에서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의견에 따라 가중치를 두기로 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결혼준비진단모델에 의거하여 결혼준비도 평가척도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연구로 개발될 결혼준비도 평가 도구는 일종의 준거참조평가의 성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평가영역구명 및 전문가에 의한 준거를 선정을 시도하였으나 준거선정에 있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평가 도구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시행과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는 본 연구의 제한점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델파이법을 실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전문가(패널)선정하는데 있어 실무에 종사하는 분보다는 학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다. 그런 이유로 상담과 같은 형식이 아닌 교육적 접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빈도수나 중요도가 낮은 세부항목도 최종 결과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결혼준비평가 영역을 바탕으로 결혼준비도 평가 문항을 선정할 때에는 가중치를 두어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결혼준비진단도구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될 때 이혼예방이라는 애초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이혼에 대한 개인적·사회적인 부정적인 결과들(Cherlin & Furstenberg, 1994; Forthofer, Markman, Cox, Stanley & Kessler, 1996)이 나오면서 국가적 측면의 집약적인 이혼예방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이혼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밝히고, 이런 연구결과들에 의거한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계획하고 시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결혼준비진단도구의 개발목적이 결혼 전 단계의 미혼남녀에게 이혼을 예방하고 결혼 이후 결혼생활의 적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 참고문헌

- 강영호(1998). 우리나라 암 연구수준의 평가와 암 연구인력 훈련요구의 예측: 델파이법의 적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웅(1999). 델파이기법을 이용한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에서의 주요이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수(1996). 과학기술예측조사의 방법론과 활용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소, 6-12.
- 김혜석(1990). 결혼준비 성인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치영, 최혜경(1996). 한국부부의 부부문제 해결과정: 자아상태, 문제인지, 문제해결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47-248.
- 박영욱, 한상순(1987).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1), 34-50.
- 서봉연, 황상민(1993). 서울대생의 심리사회 성숙성에 관한 연구. 학생연구 28(1), 1-31.
- 성태제(1998).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학지사
- 옥선화, 이기영(1996). 광복 후 가정생활의 변천.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기영, 조영희, 송혜림, 이승미(1998). 생활실계론. 교

- 문사.
- 이동원(1983). 실증적 조사를 통해서 본 한국의 부부관계. 변화되어가는 부부관계. 박금순(편). 서울: 한국부인회 총본부.
- 이미영, 박혜인(1995). 전화상담사례에 나타난 부부 갈등문제와 대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3(1), 141-154.
- 이성웅(1987). Delphi 기술예측기법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은(1993).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영(1969). 한국이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전춘애, 박성연(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 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4), 117-134.
- 정민자(1996).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I. *대한가정학회지* 34(4), 373-391.
- 최규련(1988). 한국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혜경(1998). 결혼초기부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한국가족관계학회 편. *가족생활교육 이론 및 프로그램*. 하우
- 한봉희(1976). 비교이혼법. 일조각.
- Booth, A. & Edwards, J. (1985). Age at marriage and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7, 67-75.
- Center for Marriage and Family (1995). *Marriage Preparation in the Catholic Church: Getting it Right*. Omaha, NE: Creighton University.
- Cherlin, A. J. & Furstenberg, F. F., Jr. (1994). Step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A Reconsider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20, 359-381.
- Forthofer, M. S., Markman, H. J., Cox, M., Stanley, S., & Kessler, R. C. (1996). Associations Between Marital Distress and Work Loss in a National Sampl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 597-605.
- Fowers, B. J. & Olson, D. H. (1986). Predicting Marital Success with PREPARE: A Predictive Validity Stud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2, 403-413.
- Fowers, B. J., Montel, K. H., & Olson, D. H. (1996). Predictive Validity of Types of Premarital Couples Based on PREPAR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2, 103-119.
- Glenn, N. D. & Kramer, K. B. (1987). The marriages and divorces of the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811-825.
- Kurdek, L. A. (1993). Predicting marital dissolution : A 5-year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newlyw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221-242.
- Larson, J. & Holman, T. B. (1994). Premarital predictors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Family Relations*, 43, 228-237.
- Mace, D. R. (1983). What This Book Is About. *Prevention in Family Services*, ed. Mace, D. R.(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 15-25.
- Maneker, J. S. & Rankin, R. P. (1993). Religious homogamy and marital duration among those who file for divorce in California, 1966-1971.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19, 233-247.
- Manson, M. P. (1965). California Marriage Readiness Evaluation Manual. WPS.
- Olson, D. H. (1983). How Effective Is Marriage Preparation? *Prevention in Family Service*, ed. Mace, D. R.(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 68-72.
- Olson, T. D. (1980). Marriage Education : An Illustration of the Process. *Family Perspective* 14, winter, 27-32.
- Silliman, B., Stanley, S., Coffin, W., Markham, H., & Jordan, P. (2001). Preventive Interventions for Couples. In Liddle, H., D. Santisteban, R. Levant, & J. Bray(Eds.) *Family Psychology : Science-Based Interventions*. Washington, D. C. :

- APA Publications.
- Stahmann, R. F. & Hiebert, W. J. (1997). *Premarital counselling : Professionals handbook*(2nd ed.)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Stanley, S. M. & Markman, H. J. (1997). *Marriage in the 90s: A Nationwide Random Phone Survey*.
Denver, Colorado: PREP, Inc.
- Stanley, S. M. & Markman, H. J.(1998). Acting on
What We Know: The Hope of Prevention. In
Strategies to Strengthen Marriage: What We Know, What We Need to Know. Washington D.
C.: The Family Impact Seminar.
- <http://relate.byu/english/whatisrelate/index.asp>
<http://relate.byu/english/whatisrelate/questionnaire.html>
<http://www.foccusinc.com/>
<http://www.lifeinnovation.com./studies/overview.html>

부록 - 결혼진단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1 라운드 자료 수집 결과(유사항목별 분류자료)

I. 개인적 측면의 준비

전문가의견 종합(개인적 측면의 준비)	유사항목분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었는가(4)	정서안정성
성격적으로 성숙이 이루어진 상태인가	
분노조절기술이 있는가	
자신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을 갖춘 상태인가	
심리적 만성불안증이 없을 것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부부·부모자녀관계)에서 뒤로물러설수 있는 상태인가: 즉 자기주장만 내세우지 말 것	사회인지역량
성숙된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상태	
의사소통 능력의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가 있는가(5)	사회적성숙성
사회활동능력이 있는가	
대인관계 기술이 있는가	
자신의 장점, 단점을 파악하여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가	긍정적사고
긍정적인 사고능력이 있을 것	
성취욕구의 정립(2)	윤리·도덕성
사회적으로 성숙(사회규범, 질서,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 책임감, 협동심, 시민의식, 직업의식, 국가의식 및 애국심이 있는 상태)이 되어 있을 것(2)	
도덕적으로 성숙(윤리의식)되어 있을 것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어 있는가(6)	자아정체감
개인적이해: 각자 스스로의 성격, 강점 및 약점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2)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가(3)	
자신의 기질이 파악되어 있는가(2)	
자신의 삶의 비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2)	
부모로부터 독립되었는가(6)	부모로부터의 독립
부모와의 관계가 결혼동기에 미치는 영향(1)	

I. 개인적 측면의 준비(계속)

전문가의견 종합(관계적 측면의 준비)	유사항목분류
결혼상대자에 대한 애정적 이해가 어느 정도인가	애정도
상대의 애정에 대한 확신이 있다	
파트너에 대한 애정도 혹은 수용도(2)	
성적인 측면을 포함한 애정표현능력	
사랑의 유형적점(열정적요소, 친밀감요소, 헌신의 요소)	
상대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 모습으로 되어 있다	상대방에 대한 파악 및 이해
상대방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비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다	
서로의 성장배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바탕을 둔 이해와 신뢰가 있다	
성격 및 이동을 포함한 개인적 역사, 경제적 능력, 신체적 건강, 갈등해결방식, 스트레스처리방식의 영역에서 배우자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있다	
상대방의 성장과정, 성숙정도, 친구나 직장관계, 기호, 취미, 특기, 인성, 과거문제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6)	
상대방의 기질 인식	유사성
상대방의 기대 확인하기	
서로에 대한 일치도가 높은 상태	
사회적 유사성	
가치관 일치: 성격에 대한 이해, 상호간 경제적·사회적 기대 일치여부	
같은 신앙 추구(2)	양립성
기질의 양립가능성을 확인	
각자 추구하고 있는 삶의 비전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있다	
성격의 조화	
성역할 태도의 조화	
종교적 지향의 조화(2)	보완성
가치관의 차이 인식하기	
상호차이점 조정	
여가시간 공유 및 독립적인 여가와와 균형유지노력(2)	
상대방과의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파트너의 감정 및 가치관을 수용할 능력이 있는가	
서로 성격적인 측면에서 보완관계를 이를 의향과 결심이 굳게 서 있다	

II. 관계적인 측면의 준비(II-2)

전문가의견 종합(관계적 측면의 준비)	유사항목분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정확히 잘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는 관계, 즉 대화가 잘 되는 사이, 따라서 갈등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관계	의사소통능력
서로간 의사소통 능력이 있고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상태(4)	
두사람의 의지, 협력, 노력으로 성공적인 결혼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의사소통, 갈등해결, 애정표현방법 등)을 갖춘 상태인가	
커플간 갈등해결과정 중 폭력사용의 유무	
관계의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는 상태	
파트너로부터의 자율성정도	자율성

III. 결혼생활 측면의 준비(III-1)

전문가 의견 종합(결혼생활 측면의 준비)	유사항목분류
배우자의 성에 대한 이해	성
성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가 있는가	
섹슈얼리티에 대한 태도	
성생활의 지식 및 피임	
결혼목표 정립(3)	결혼관
배우자, 결혼, 자녀에대한 관점이 성숙한 상태	
두사람의 관계에 헌신하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2)	
각자가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서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의지가 있는 상태(3)	
동반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상태(2)	
결혼관계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균형을 맞추어서 상호 성장과 공동의 영역을 쌓아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소유	
결혼생활에는 항상 많은 문제와 곤란이 있으며 결혼은 현실이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8)	
성공적인 결혼이란 부부가 함께 협조하고 노력함으로써 얻는 것임을 아는 상태(4)	결혼생활정보
결혼생활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인가	
결혼생활이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자원,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과 정보소유(2)	
결혼에 따른 변화이해 : 결혼이후에 달라질 생활에 대해 알고 있고 이것들에 대하여 서로 의사소통하는가	
배우자 역할에 대한 이해	역할분담
성역할에 대한 가치 : 성역할과 가사분담 등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알고 받아들이고 있는가(2)	
상호역할분담	
역할양립성여부 및 역할수행가능성	
평등주의적 역할지향: 맞벌이여부(2)	
여가활동	자녀출산과 양육
자녀에 대한 가치 : 자녀를 원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및 양육방식 상에 뚜렷한 견해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그것들의 합의에 이를 수 있는가(8)	
자녀양육방법(2)	
경제적인 독립, 바람직한 소비능력, 구매행동태도 등이 어떠한가(5)	금전관리
가정경제의 책임자, 관리방법이 합의된 상태(7)	
재정적 관리에 대한 지식 및 필요성을 인식하는 태도(2)	

III. 결혼생활 측면의 준비(III-2)

전문가의견 종합(결혼생활 측면의 준비)	유사항목분류
상대의 가족에 대한 이해 : 배우자의 가족에 대해 알고 있고 이것들에 대하여 서로 의사소통하는가	양가가족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이해
집안의 결합으로서 책임감을 갖춘 상태 : 상대편 출생가족을 확실히 파악하고 적응한 상태로서 가족행사, 그 의미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상태	
양가 부모 등의 친족관계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2)	
배우자 집안에 대한 이력이 완전히 숙지된 상태(2)	
부모의 결혼생활이 자신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있는가(2)	
자신의 결혼에 대한 직계존속의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2)	
양가의 사회경제적 배경차이, 가족문화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2)	
인척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2)	
양가 가족생활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가족력 및 친족관계분석을 통해 세대간 전수되는 가족문제가 있는가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이 어떠한가	
친족간의 결속도 및 상호친밀도가 어떠한가	
가부장적인 가치관(가족가치관의 보수성)이 어떠한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존도 및 친밀도가 어느 정도인가	
가족형태 선호도에 대한 합의(5)	

IV. 기타영역의 준비

전문가의견 종합(기타영역의 준비)	유사항목분류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할 것(9)	건강
결혼의례에 대한 준비(약혼식·결혼식·신혼여행의 내용과 비용에 대한 합의, 혼수범위 및 내용 등) 가 이루어진 상태(5)	결혼의례준비
연령상 성인기에 해당할 것(2)	연령
적절한 교제기간일 것 : 적어도 9개월 이상 (2)	교제기간